

살맛나는 행복쇼핑! '9월 동행축제' 개최

전북중기청, 무주·장수·전주 동행축제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인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9월 동행축제는 추석 명절에 맞춰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할인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추진된다.

우선 공영홈쇼핑의 TV홈쇼핑에서는 9월 한 달 간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신청 후 방송상품을 앱으로 구매하면 적립금 10% 지급 추석 연휴인 18일까지 3만원 이상 방송 상품을 모바일 앱을 구매하면 짝수 회차 마다 적립금을 지급 10회 달성 시 최대 3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이 외에도 다양한 기획전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에서 축제 대표 제품으로 엄선된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제품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출석 이벤트, 우수제품 접하기 이벤트 등도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20만원 상당 선물박스, 온누리상품권, 커피 기프트콘, 아이스크림 쿠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9월 다채롭게 열리

는 전북 지역 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하여 동행축제가 진행된다.

먼저 제28회 무주 반딧불축제와 반딧불과 함께 그린(Green) 가치'라는 주제로 무주등나무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푸드장터, 농·특산물 판매장, 야밤도주(아시징) 등 많은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이어서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도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라는 주제로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 특산물 위주에서 벗어나 레드푸드 콘셉트로 전환하여 한우미팅, 사과미팅, 향토음식거리 등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전주신중안시장 한사발 마걸리 축제, 전주서부시장 가뭇축제 개최되고, 4개 지역 상권활성화 구역에서는

영수증 환급행사, 추석맞이 장보기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가인 '소담스퀘어 전주'를 통해서 라이브커머스(실시간 소통 판매)를 진행한다. 무주 반딧불축제,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제품에 프로모션을 더해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전북생생장터'에서도 9월 동행축제와 연계하여 추석 특별할인 20% 할인 쿠폰 지급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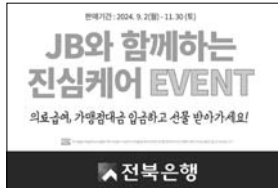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태용 청사는 "동행축제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지역 우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을 올려 행복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JB와 함께하는 진심케어 이벤트'

전북은행, 11월 30일까지 개원의 대상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원을 대상으로 'JB와 함께하는 진심케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병원 및 의원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중 전북은행 입출금 계좌로 의료급여 또는 가맹점 매출대금 500만원 이상을 입금하고, 의료급여와 가맹점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잔액이 500만원 및 평균잔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된다. 이 중 추첨을 통해 롯데호텔 통합숙박권 50만 원권(10명)을 지급한다.

더불어 전북은행 첫 거래 개원의 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더했다. 이벤트 기간 내 신규 거래하거나 월 1~8월 동안 전북은행 입출금통장에 의료급여 또는 가맹점 매출대금이 미입금 된 고객에 한해 추첨을 통해 SK 모바일 주유



쿠폰 3만 원권(180명)을 추가 증정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미래를 소망하며 개원의 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과 함께 신규 거래 고객은 추가 사은품 증정 등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오만호 기자

'베트남 시장개척단' 농기자재 수출에 새로운 활로를 열다

농어촌공, 현지 수출상담회 통해 7.3백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 체결 성과 얻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달 28일부터 31일까지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15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한국 농기자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출 시장 개척에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농기자재 8개 품목(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공사의 '농산업 수출지원사업'의 일환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파견에 앞서, 공사는 베트남 정부의 '농경지 70% 유기농 전환 계획' 등



정책 동향과 시장 특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베트남의 환경, 구매업체와의 상담 전략, 그리고 수출 성공 사례를 사전 교육하여 참가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과 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현지 30개 유망 구매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104건의 1:1 상담이 이뤄졌고, 7.3백만 달러 규모의 협약 14건이 현장에서 체결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시장개척단은 베트남 농업농촌 개발부(MARD)와의 면담으로 현지 정책과 인증 절차를 파악하고, 농기계·시설자재 시장 환경 세미나, 기업방문·상담, 유통시장 분석 등을 통해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기업은 "상담회를 통해 수출에 필요한 절차와 현지 유통업체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계유지로 수출을 확대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행사가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농산업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육기 기자

농촌진흥청, 지역 주민·학생 대상 초고성능 컴퓨터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환)은 3일 지역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에서 '초고성능 컴퓨터 소개 및 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학생에 농업 분야 초고성능 컴퓨터와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8월 28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모집한 전북지역 초·중·고

교생 포함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다.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시설을 견학하고 시설 활용과 관련한 의견 수렴,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권수진 과장은 "이번 행사가 농업 분야 초고성능 컴퓨터의 역할과 필요성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박테리아와 인공지능 관련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를 열고 초고성능 컴퓨터 2호기를 도입했다. 이는 초당 2,900조 번 계산 가능 일반 컴퓨터 3,600대가 동시에 작업하는 것과 같은 성능으로 2024년 6월 기준 세계 418위 수준이라고 전했다. /김육기 기자

전북 농수산물식품기업 대구 경북권 판로개척 교두보 확보... 연일 문전성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우수 농수산물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개최한 대구국제식품산업전 행사에 참가하여 대구 경북권 판로개척을 이어갔다.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서는 도내 농수산물식품 기업 14개사와 함께 전북공동관을 운영하여 현장판매 실적 3,500만원, 계약성과 1,600만원 등 총 5,100만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바이어들과의 후속 협상결과에 따라 추가 납품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바이오진흥원은 박람회 기본 컨셉을 벗어나고 주부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색다른 컨셉으로 참가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기본 제품 부스가 아닌 최신 트렌드에 맞춘 '오늘은 집밥, 내일의 훈술거리, 내일의 삼시세끼' 부스와 세프북 착용 등 차별화된 전북관을 운영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다. 특히 '홍삼이생강날때'는 현장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국내 납품 현장계약에 이뤄졌고, '애플린 초이브루어리' 등 전북에서 재배되는 농산물로 제조된 와인과 전봉주사 소비자 및 바이어들에게 큰 눈길을 끌며 향후 추가 납품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대구 경북권 판로개척 행사에서 전북식품기업이 좋은 성과를 올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식품산업 수도인 전북 특별자치도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유통 채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육기 기자



어들에게 큰 눈길을 끌며 향후 추가 납품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바이오진흥원만의 특별한 전시마케팅이 추가된 전북공동관을 지켜본 한 도의기업 대표는 "독창적인 컨셉으로 참여한 곳은 전시장을 통틀어 전북특별자치도 밖에 없었다. 덕분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더 잦은 것 같다"며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고, 전북공동관에 참여한 도내기업 대표들은 연일 계속되는 문전성시와 구매문의에 합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대구 경북권 판로개척 행사에서 전북식품기업이 좋은 성과를 올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식품산업 수도인 전북 특별자치도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유통 채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육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